통도사 불교대학, '교육 포교' 지평 열다

3월 8일 설법전서 입학식 개최
불교대학 입학 인원 매년 증가
올해 1242명 최대 인원 입학
현덕 스님 "배운 불교 실천해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2025년 통도사 불교대학'에 1242명이 입학하면서 역대 최다 입학 인원을 기록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 불교대학이 해마다 도약을 이루며, 2025학년도에도 역대 최다 입학 인원을 기록했다. 신도교육을 통한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통도사는 3월 8일 경내 설법전에서 '2025년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주지스님 환영 인사, 축가, 내빈 및 강사스님 소개, 입학 및 수강 현황 보고,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현덕 스님과 강사스님 및 입학생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통도사 불교대학 입학생은 1242명(1학년 321명, 2학년 267명, 대학원 과정 654명)으로, 2023년 1004명, 2024년 1128명에 이어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다. 이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관심과 지원, 주지 현덕 스님의 지도 아래, 강사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 그리고 포교국의 체계적인 운영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보인다.

이날 입학생들은 구하정 불교대학 2학년 불자가 대표로 낭독하는 발원문에 맞춰 수행 정진의 서원을 세웠다. 입학생들은 "이 자리에 모인 저희는 더없이 크고 밝은 뜻을 간직한 불제자로서, 기쁨과 희망의 마음을 담아 제불보살전에 발원한다"며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삶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저마다의 가슴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무생법인의 부처님 세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비록 일상과 직장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며 "불교는 머리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함께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며 듣고, 사유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 불교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사중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습 환경 개선이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강의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강의, 온라인 강의 자료 공유, QR코드 출석 체크 시스템 도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학습 환경을 구축했다. 또 통도사 불교대학에서는 졸업 후에도 불자들이 다양한 신행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강사진 구성도 뛰어나다. 불교대학의 커리큘럼은 초기불교, 대승불교, 불교철학, 수행법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균형 있게 배치해 학습자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포교국장 신경 스님은 "통도사 불교대학의 성장에는 강사스님들의 연구와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교대학은 수행과 신행이 함께하는 곳으로, 강사스님들께서 꾸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불교대학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현진 스님 "선시, 수행자가 남긴 긍정의 노래"

〈禪詩〉

조계종부산연합회 승려연수교육 '선시' 강의 개강

3월 11일 안국선원 교육관서
"깨달음은 깊은 법향 남겨"



"선시는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선사 스님들이 한 편의 선시를 남긴 것은 수행과 깨달음이 응집된 하나의 게송입니다. 이는 자신을 긍정하고, 그 확신을 노래한 것입니다."

3월 11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열린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 승려연수교육에서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사진〉이 선시(禪詩)의 본질을 설명했다.

현진 스님은 "오도송(悟道頌)이나 깨달음 이후 읊은 게송들은 한마디로 '대긍정'"이라며 "깨달음의 순간 선사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긍정을 했고, 그것을 게송으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오도송'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려 하지만, 이를 긍정의 노래라고 보면 훨씬 가깝게 다가올 수 있다"며 "선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긍정하며 살아가는지, 긍정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진 스님은 경봉 스님의 선시 '초목삼동개입정(草木三冬皆入定)하니 동한빙설연정시(凍寒氷雪鍊精時)라. 다경풍우험과사(多經風雨險過事)는 지대개화향발시(只待開花香發時)로다'를 소개했다.

스님은 "수행자는 겨울의 고난을 견뎌내고 봄에 꽃을 피우는 초목과 같다"며 "산천의 초목들도 삼동(三冬)의 추운 겨울이 되면 모두 선정에 들 듯이, 수행자도 혹독한 겨울 수행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어붙은 차가운 겨울을 견디는 동안, 수행자는 내면을 단련하고 정진하며, 마치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목처럼 버티어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자는 수많은 풍파와 험난한 과정을 거치지만(多經風雨險過事),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 자만이 마침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퍼뜨릴 수 있다(只待開花香發時)"며 "겨울 동안의 고난을 이겨내고 피워낸 꽃은 향기가 짙듯이, 수행자가 정진을 통해 이룬 깨달음 역시 깊고 향기로운 법향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과 긍정을 얻을 수 있다"며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듯이 수행자는 깨달음의 순간 긍정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는 자연의 이치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3월 11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승려연수교육 '선시'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번 교육은 4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5회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에게는 연수교육 인증점수 30점이 부여된다. 이번 과정에는 조계종 스님 40명이 접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聯, 제4기 선재동자전승단 출범

1년간 전통문화 계승·홍보 앞장



부산불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연등회와 팔관회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제4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이 공식 출범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3월 9일 천태종 삼광사 문화실에서 '2025년 제4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천태종 삼광사 어린이회로 구성된 이번 전승단은 불기 2569년 부산연등회와 팔관회 등 주요 불교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다.

덕중 스님은 발대식에서 "선재동자는 관세음보살에게 가르침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며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주변을 밝히는 선재동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4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1년 동안 다양한 전승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3월에는 전통등 만들기, 4월 18일 부산연등문화제 개막식에서 호기놀이 재현, 4월 26일 부산연등행렬 참여 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힘쓴다. 또 10월 팔관회 선재동자 수계법회 등 호국 관련 체험 프로그램에도 동참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행복선원, 노인복지센터 건립 발원 기도

3월 9일, 500일 맞아 기념법회
정여 대종사 초청 특별 법문도



부산 북구 행복선원(주지 윤광 스님)이 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발원하며 '금강경' 1000일 기도를 정진하는 가운데, 500일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가 법문을 펼치는 특별법석도 마련됐다.

행복선원은 3월 9일 경내 법당에서 '금강경 1000일 기도 500일차 회향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정여 대종사는 법문에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돈이 없으면 괴롭고, 있으면 또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에 고통받는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윤광 스님은 "행복선원이 전법을 실천한 지 올해 10년을 맞았다"며 "이 뜻깊은 해에 '금강경' 1000일 기도 500일차 법회를 봉행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WISE캠 정각원장에 법천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가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장에 법천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법천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주요 소임으로는 용인 백련사 주지, 부산 반야선원 주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법사 등을 역임했다.

법천 스님은 "동국대 WISE캠퍼스가 불법(佛法)의 정신으로 대학교육의 이상을 구현하길 기원하며, 정각원을 보합대화(保合大和)의 장으로 이끌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법천 스님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42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5년 4월 5일~5월 24일
매주 토요일 (8주간)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교재비 별도
문 의 : 031-470-3200/319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